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자님에게!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만이 유일한 신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현재 상황이 지난 4년전에 정권을 잡은 힌두 근본주의 자들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않고 계속해서 추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약 300여명의 선교사들이 비자 거부와 추방을 당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난 3월 2일이 비자가 끝나서 현재 연장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신청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서 불법체류 비슷하게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집과 사무실 모든 곳을 다 조사해 갔고 저도 이민국에 6번이나 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를 태우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비자가 빨리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보도된 내용을 연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http://naver.me/xXdtEwEa>

지난 1월에는 저희 청소년 지도자들 20여명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녀 왔습니다. 약 1200키로 이상 떨어진 시골 지역으로 갔었는데 약 2000여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집회를 같이 갔던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특별히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거의 원시 생활을 하는 미전도 종족인 베가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족에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가 종족의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담당으로 사역하는 아닐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종족 마을에 우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물을 하나 파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우물로 인하여 육체의 생수도 마시지만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 종족에게 전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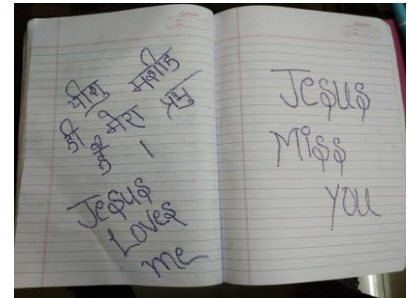
아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사역에 어릴때 신장이 두개 다 망가져서 전혀 자라지도 못하고 눈까지 거의 먼 알리야라는 아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알리야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몸이 뒤틀어지고 아주 심각한 피 부족과 경련으로 응급실로 그리고 중환자 실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알리야가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염려와 기도를 했습니다. 알리야는 현재 19살인데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7살 정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3년 동안 도와 주지 않았다면 살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거의 매달 20만



원 이상의 약과 병원비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주었던 아이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정도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때에는 저희들이 방학때마다 하는 성경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언을 쓰기로 하였는데 전체 110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 순종하여 따라 주는

저희 아이들과 교인들이 너무 이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잠언을 쓰면서는 그 주옥같은 말씀의 맛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시상도 엄청나게 많이 했으며 시상 할때 잠언을 쓰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방학때마다 성경을 계속 써나갈 예정입니다. 약 10년 정도면 모든 성경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인도는 새학기가 4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진급시험이 끝나면 약 한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이 방학을 또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영적성숙의 기회이기에 저희들은 아주 빠센(?) 성경 수련회를 합니다. 21일-24일까지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13개의 강의를 듣고 5번의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단계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무장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 주일은 저희 사역에서 정말 역사적인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희 사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외로 파송을 하지는 못하지만 힌두교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진이며 가장 오래된 성지인 갠지스강의 중류인 '바라나시'라는 국내의 도시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학교를 졸업한 "산제이" 형



제를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산제이 형제는 결혼하여 2살된 딸이 있는 형제입니다. 12년전 11살에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서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기쁘이고 영광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나시는 영적으로 정말 가장 힘들고 최악의 도시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이 이 지역에 파송되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사님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충분히 채워져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년 부활절에 시행하는 침례식도 있습니다. 올해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매년 침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침례 받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9일은 저희들이 지난 약 9개월동안 건축해 오던 니와스 교회당의 건축이 끝나서 헌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몇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처소인 예배당 건물을 온전히 완공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해 주셨던 분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인 이선생은 눈에 녹내장 증상이 있어서 계속 약을 넣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딸 은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 본부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위염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갈렙은 지난 주간에 토요일마다 하는 한글학교에서 6학년 졸업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한글학교에 간 것으로 인하여 이곳 인도에 살면서도 아직도 가장 편한 언어가 한국말인 것은 한글 학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갈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영어는 또 잘 못합니다. ㅋㅋ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인도 현지인 학교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기숙사학교로 옮겨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저희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는 인도는 벌써 기온이 4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동안 인도의 더위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니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갈수록 더위가 심해 질 뿐만 아니라 저도 또 가족들도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도 이 더위를 슬기롭게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이땅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바울 가족 드림